

# 볼보의 안전 철학 담은 '인텔리세이프', 온가족 지키다

## 자율주행백서

### 볼보 XC90

방송인 박지윤씨 역주행 사고 화제  
충돌 회피 시스템으로 피해 적어  
파일럿 어시스트 편리한 조작 장점

“우리는 자율주행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볼보자동차 관계자 말이다. 자율주행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사람이 운전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볼보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볼보는 일찌감치 '파일럿 어시스트'라는 이름으로 2단계 수준 자율주행 기능을 전 모델에 기본 탑재해왔다.

최근 출시한 XC9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로 파일럿 어시스트 수준을 시험해왔다. 이미 여러 사고 사례로 안전 성능은 증명된 상황. 파일럿 어시스트는 사고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볼보 XC90은 안전과 편의, 럭셔리까지 잡은 최고 인기 대형 SUV다. /볼보

볼보 파일럿 어시스트는 조작부터 편리하다. 스티어링 휠 왼쪽 버튼을 전용으로 만들어 기능을 켜고 끄거나 거리를 조절하는 등 조작을 한두번 클릭만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왼쪽 버튼은 파일럿 어시스트, 오른쪽 버튼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작동을 시작하고, 위 아래 버튼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바로 오른쪽에는 앞차와 거리 간격을 조절하는 상하 버튼이 있다.

앞 차와 간격은 설정한 대로 일정 수

준을 잘 유지했다.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전방에 정체 구간을 만날 때도 무리 없이 부드럽게 제동을 걸어줬다. 긴급제동 기능인 시티 세이프티 기능은 차량 뿐 아니라 자전거나 큰 동물도 인식해서 급제동을 돕는다는 설명이다.

스티어링 휠은 차선 중심을 잡기 위해 5~10도 가량을 스스로 움직여준다. 운전이 다소 서툴더라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다. 대체로 왼쪽 차선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차선이 없어지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만, 스티



파일럿 어시스트를 작동한 모습. 차선을 인식하면 스티어링 휠 아이콘이 초록색으로 바뀐다.



볼보 XC90 스티어링 휠 왼쪽 버튼. /김재용기자

어링 조작 경보가 수초만에 울리는 탓에 손을 놓지 않도록 꾸준히 경고한다.

위험 경보 시스템은 예민하다. 앞차와 간격이 줄어들거나, 주차시 주변에 사물이 감지되면 긴급하게 알람을 울려

준다. 다만 예전 모델보다는 정도를 완화한 덕분에 알람은 수준을 유지했다.

주차시에는 360도 카메라와 레이더 4개가 힘을 쓴다. 주행중 예민한 반응과는 달리, 주차 중에는 다소 여유롭게 알람을 울린다. 평행 주차 상황에서는 '주차공간에서 나오기' 기능으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 차량에 탑승하면 활성화 여부를 물어보고, 실행하면 탈출을 돕는다. S60 등 일부 모델에는 자동주차시스템(PAP)으로 직각 주차가 평행주차 스티어링 휠 조작을 직접 해준다.

그 밖에도 충돌 회피 보조장치가 있다. 전방에 긴급 상황에서 차량을 멈추기 어려운 경우 직접 큰 폭으로 조향해 회피를 돕는 기능이다. 최근 화제가 됐던 방송인 박지윤 씨 가족 충돌 사고에서도 이 기능이 작동되면서 충격을 완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지능형 안전 시스템은 '인텔리 세이프'라는 이름으로 총칭된다. 전면 상단에 있는 모듈과 차량 곳곳에 달린 센서로 차선과 사물 등을 인식해 상황에 따라 대처한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삼성SDS-NHN, 디지털 전환 사업 '동맹'

클라우드, 보안 협력 등 협약

삼성SDS와 NHN이 신규 사업기회 발굴과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사업협력을 강화한다.

양사는 지난달 31일 클라우드 서비스 및 데이터 분석,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분야 공동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협력협약(BCA)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클라우드 기술

을 활용해 ▲NHN 클라우드 기반 삼성SDS 데이터분석과 보안솔루션 제공 ▲NHN 간편결제에 삼성SDS 블록체인 적용 사업 협력 등을 진행한다.

지난 5월 클라우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는 양사는 디지털 신기술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여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사는 정기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이번 협약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꾸준히

발굴하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NHN 이준호 회장은 "삼성SDS와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삼성SDS 흥원표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두 회사의 강점을 잘 결합하여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지난 7월31일 진행된 코로나19 확산예측 연구 얼라이언스 성과발표회에서 KT AI/빅데이터서비스담당 변형균 상무가 발표하고 있다. /KT

## KT, 코로나 예측 얼라이언스 성과 공유

1기 활동 종료... 방역체계에 활용

KT는 '코로나19 확산예측 연구 얼라이언스' 1기 활동을 종료하고 그간의 연구 성과를 코로나19 방역체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예측 연구 얼라이언스는 지난 3월 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함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다. 이와 함께 ▲서울대 ▲건국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양대-국가수리과학연구소(수리연)가 참여했다.

KT는 자사의 유동인구·로밍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수리 모델링 등의 기술을 통해 참여 기관들과 코로나 19의 국내 유입 및 지역 내 확산을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얼라이언스에서 진행한 코로나19 확산예측 연구는 '감염병 해외유입 위험도 예측'과 '국내 확산지역 예측' 등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이뤄졌다.

우선 해외에서 감염병 발생 시 국내 유입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해 KT AI·

빅데이터 서비스담당은 기계 독해 기술로 전 세계 코로나19 관련 뉴스기사에서 추출한 해외 감염병의 국내유입 예측했다. 아울러 카이스트 안인성 실장팀은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예측', 서울대 황승수 교수팀은 '서울시의 코로나19 미확인 해외유입 환자수 추정', 한양대-수리연의 손우식 박사는 '코로나19 19국의 감염자 입국 예측'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또 감염병의 국내 확산지역 예측을 위해 건국대 정은옥 교수팀의 '정부의 비약물적 중재정책에 따른 감염재생산지수 및 유동인구 변화 분석', 카이스트 박주용 교수팀의 '코로나19 전파 경로 네트워크 분석' 등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KT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나온 연구 성과를 코로나19 방역체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 및 고도화할 예정이다. 연구 얼라이언스 1기 운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연구기관과 연구범위를 확대해 '코로나19 확산예측 연구 얼라이언스 2기'를 출범할 계획이다.

KT AI·빅데이터 사업본부장 김재희 상무는 "이번 확산예측 연구 얼라이언스 1기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성과를 K 방역 강화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 기자

## 라이엇게임즈

### 롤드컵 내달 25일 개막

코로나 고려해 中 상하이서만 진행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개발 및 유통사 라이엇 게임즈는 '2020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을 중국 상하이에서 내달 25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롤드컵은 한국을 포함한 12개 지역별 리그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팀들이 모여 세계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지난 2019 롤드컵 결승전의 경우, 최고 동시 시청자 수가 4400만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2020 롤드컵은 9월 25일에 개막해 10월 31일에 결승전을 치르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올해 롤드컵의 테마는 '쟁취하라'다. 결승전은 9월 말 안공 예정인 '푸동 축구 경기장'에서 열린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선수와 팬을 포함한 모든 대회 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롤드컵은 상하이 한 곳에서만 진행된다. 보건 기관 및 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 기자

## "내년 해외로밍 미리 신청하고 할인 받자"

LGU+ 로밍상품권 선판매

해외로밍 상품권을 미리 구입하고 요금제 가입 시 최대 15% 할인과 무료 여행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얼리버드' 프로모션이 시작된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해외로 출국할 예정인 고객이 할인된 가격에 해외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U+안심로밍' 프로모션을 8월 한 달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LG유플러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에 나가지 못했던 고객들이 연말 또는 내년에 해외로 나갈 때 사용할 수 있는 해외로밍 상품권을 선판매한다. 최근 항공업계 등에서 판매중인 '선불 항공권'과 같이 해외에 나가기 전에 고객이 미리 로밍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안심로밍' 상품권은 최대 15% 할인된 가격에 제공된다. 모든 해외로밍 요금제를 가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은 '안심로밍 33' '안심로밍 55' 등 2종이며, 각각 10%와 15% 할인된 가격



인천공항 제2터미널 LG유플러스 로밍센터에서 U+안심로밍 프로모션에 대해 소개받고 있다.

에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을 구입한 뒤 해외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받거나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다.

이용기한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다.

LG유플러스는 8월 한 달간 U+모바일 고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U+안심로밍' 이벤트를 통해 150명에게 선물을 지급한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퀴즈를 풀고 고객 150명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김민 기자 silkni@